

1 개요

대정읍 가파리의 본섬인 가파도에 있는 아기업개 바위와 관련된 지명 전설이다.

2 내용

예전에는 가파도에 사람이 살지 않았다. 어느 해에 모실개(모슬포)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갔다. 물질이 끝나고 이곳을 떠나라고 하자, 풍량이 심해졌다. 삼사일을 기다려도 배를 띄울 수가 없었다. 선주가 잠을 자는데, 한 할머니가 꿈에 아기 업은 처녀를 섬에 놔둬야 떠날 수가 있다고 했다. 하루를 더 기다려도 바람이 그치지 않고, 더 있으면 굶어 죽게 되었다. 선주는 아기업개를 태우지 않기 위해 심부름을 시키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태우고 배를 띄웠다. 그들은 무사히 모슬포로 돌아왔다.

3년 뒤에 선주와 사람들이 가파도에 가보니, 바닷가 바위에 뼈만 남아 있고, 그 옆에 아기업은 처녀와 같은 모양의 바위가 서 있었다. 아기업개 처녀가 홀로 남아 바닷가에서 슬피 울다가 죽게 되고, 돌로 굳어서 바위가 되었다고 믿었다.

3 특징

마라도 아기업개당 전승과 같은 내용이다.

4 핵심어

가파리, 아기업개 바위, 가파리 아기업개 바위, 아기업개, 모실개, 모슬포, 처녀

5 원전 서지사항

가파리 아기업개 바위(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6 관련 자료

마라도 본향 애기씨(진성기, 《제주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